

日 후쿠시마 오염수 빠르면 8월에 방류한다

日정부 "여름 방류 방침 변경 없어" 한국·대만 등 선거 이슈화 피하기

일본 정부가 8월이라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해양 방류하기 위한 조율에 들어간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닛케이)이 5일 보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내놓은 종합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함에 따라 주변국과 일본 내 어민들에게 IAEA 보고서를 바탕으로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한 뒤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 대변인 "여름 무렵 방류 방침 변경 없어"-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8월 방류 개시 가능성에 관한 보도에 관련해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의 해양 방류 시기는 올해 봄부터 여름이라

는 방침에 변경이 없다"며 "구체적인 방류 시기는 안전성 확보와 소문 피해(풍평 피해) 대책 대처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도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7월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교부할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규제위는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실시된 이 검사에서 설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도쿄전력에 설비 합격증을 의미하는 '(검사)종료증'을 교부한다. 이 증거가 발행되면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가능해진다.

IAEA의 종합 보고서가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바로 방류에 나서지 않고 우선은 국내외 여론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다 총리는 전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보고서를 전달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지도자"라며 "일본과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국내외에 (오염수의 안전성을)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국내에서는 방류에 반대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며 이해를 구한다. 경제산업성은 IAEA 보고서 발표 이튿날인 이날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IAEA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 행사에는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참가했다. 일본 전국의 어업조합들이 가입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와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 이후 소문 피해를 우려해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채택했다.

앞서 2015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의)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과 약속한 바 있다.

방류 반대 여론이 강한 주변국에 대해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한국·중국 외교장관과 각각 회담하고 방류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여름 방류 개시는 국내외 정치 정세 영향 피하려는 목적"-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여름 무렵에 방류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외 정치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오는 11월 후쿠시마현의회 선거 등 올가을 이후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등 방류 주변 지역 3개 현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강한 이 지역에서 이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오염수 방류를 미루면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과 한국 야당이 오염수 방류를 지렛대로 일본과 친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한국의 윤석열 정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이유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모든 나라의 이해를 얻기는 어렵다"며 "최후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 독립기념일 연휴 곳곳서 총기 난사 사건 최소 10명 사망 수십명 부상

미국의 최대 축제 기간 중 하나인 독립기념일(7월 4일) 연휴에 곳곳서 총기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이번 연휴에도 어김 없이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의회 차원에서 공격용 무기 금지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공화당에 거듭 촉구했다.

4일(현지시간)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경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 킹세싱 지역에서 40세 남성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성인 남성 5명이 숨졌다. 2세와 13세 어린이 2명도 다쳤지만 안정적인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총격을 가하며 달아나는 용의자를 추격 끝에 체포했으며, 현장에서는 50여개의 탄피가 발견됐다.

텍사스주 포트워스 코모 지역에서도 전날 밤늦게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주차장에서 총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죄 집단과 관련된 것인지, 가정 분쟁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언급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새벽에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지역 축제장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피해자 연령대는 13세에서 32세 사이로, 피해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로 알려졌다. 부상자 중 4명은 위중한 상태.

또 같은 날 새벽 캔자스주 위치타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美 대선 후보자들 "저는 젊습니다" 웃통 벗고 팔굽혀펴기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신체적인 건장함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자 애쓰고 있다.

양당의 지지율 선두 주자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고령인 점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자신은 '젊은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야시 오스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에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69)가 야외에서 운동하는 동영상이 널리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케네디 주니어는 짙은 앞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야외에서 웃통을 벗은 채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역기를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여며 노인장을 과시했다.

팔순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를 두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신은 상대적으로 젊고 건장하다는 점을 내세우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뒤를 이어 2위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론 디샌티스(44) 플로리다 주지사의 경선을 후원하는 슈퍼팩(Super PAC) 특별정치활동위원회)은 최근 야구 배트 든 디샌티스의 모습을 담은 '야구 카드'를 제작해 지지자들에게 발송했다.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예멘 반군 후티가 장악한 수도 사나에서 시위대가 최근 요르단강 서안에 급습을 감행한 이스라엘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제닌의 난민촌이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의 은신처라며 무기를 파괴하고 압수한다는 이유로 지난 3일 대규모 군사작전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대치... 요르단강 서안서 가자지구로 확산

로켓 공격에 전투기 동원 보복 공습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시작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무력 대치가 이번엔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5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로켓이 발사됨에 따라 전투기를 동원해 보복 공습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새벽 가자지구에서 이스

라엘 남부를 겨냥해 총 5발의 로켓이 발사됐으며, 모두 저고도 방공망인 아이언돔에 의해 요격됐다.

남부 스테르트에서는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의 파편이 민가에 떨어졌지만, 다행히 사상자 보고는 없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로켓이 발사된 지 몇시간 만에 전투기를 동원해 보복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자국과 자국민을 노리는 테러 세력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3일부터 이틀간

요르단강 서안지구 북부 제닌의 난민촌에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벌였다.

이스라엘군은 드론을 동원해 무장세력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이어 지상군을 투입해 수색과 용의자 검거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측에서 최소 12명이 죽고 100여명이 부상했다.

이스라엘군 측에서도 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연합뉴스

베트남 1위 관광지지는 호찌민을 상반기 4조4천억원 수입

올해 상반기에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관광 수입을 올린 지역은 호찌민시로 파악됐다.

5일 베트남관광청(VNAT)에 따르면 올해 1~6월 지역별 관광수입은 남부 최대도시인 호찌민이 80조 동(약 4조4000억원)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2% 늘어난 수치다.

수도 하노이는 74% 증가한 44조 동(약 2조4000억원)을 기록하면서 2위에 올랐다.

이들 지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입국 요건 완화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고 있다.

호찌민의 경우 외국인 입국자 수가 작년 상반기에 비해 3배 증가한 194만명, 하노이는 7배 늘어난 203만명을 각각 기록했다.

세계문화유산인 하롱베이이 위치한 핑닌성은 16조6000억 동(약 9100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올 상반기 베트남의 총 관광수입은 343조 동(약 18조8000억원)이며, 올해 목표는 650조 동(약 35조7000억원)이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10-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